ITSoC network

– 글로벌 지식강국을 만들어가는 IT 기술혁신 선도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ita.re.kr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협약

2005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SoC 신규/계속 과제 11개(정부출연금 282억)에 대한 협약을 5월초에 완료하였다. 각 대상과제의 협약을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IT SoC 전문위원실(PM실)과 과제책임자가 함께 마일스톤, 수행계획서 및 수행계획 협의확인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과제 진행과정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일스톤이 연말에 너무 집중되는 것 보다는 핵심연구결과로써 분기당 1개씩 연 3~4개 정도로 설정하였고,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은 핵심성과 위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하여 마일스톤 종료시점에서 핵심결과의 성공여부 판단시 참고할 만한 정량적 수치값/기준값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협약의 목적은 대상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IITA PM실과 과제책임자 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 문의: 이상호 연구원 (042-710-1183)
임문혁 연구원 (042-710-1186)

IITA-ETRI IT839 전략회의 개최

IITA와 ETRI간 IT839 정기 전략회의가 5월 31일 ETRI에서 IITA 김태현 원장과 ETRI 임주환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IT신성장동력별 SoC개발 현황 및 SoC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부품간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된 부품 Roadmap 공동수립, ETRI 내 연구단-기반소 간 실질적인 공동연구 추진, 기반소의 인프라 mass를 적극 보완 및 활용(CAD, IP 및 SoC플랫폼 DB 구축, 유연한 설계인력교류, 칩 개발경험), 시스템/부품 사업 병렬 추진 및 기술교류 활성화, 연구단-기반소 공동연구 추진으로 시스템-부품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향후 SoC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전략회의 결과 Action item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문의: 장선호 기술역 (042-710-1181)

IT839 시스템-부품 체계도 자료집 발간

IT SoC 전문위원실에서는 IT839 전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IT SoC 및 부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8대 신성장동력별 HW시스템-부품 체계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신성장동력별 주요 제품들을 시스템-모듈-부품-요소기술로 체계화하였다. 성장동력별 202개 핵심부품의 현재 수급현황 및 수급방법을 제시하였고, 추가개발이 필요한 부품 14개 및 모든 성장동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PU, 센서, Analog/RF IP의 개발방안을 도출하였다.

자료집은 시스템, 모듈, 부품을 개발하는 모든 산업체, 연구소, 대학에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시스템과 연계된 부품개발을 통한 부품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체계화 작업은 향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알찬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IITA IT SoC PM실은 계획하고 있다.

■ 문의: 장선호 기술역 (042-710-1181), 이상호 연구원 (042-710-1183)

SoC 신규과제 선정

2005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SoC 신규과제 2개가 선정되었다. 첫 번째 "모바일용 저전력 모뎀 핵심 IP개발(주관기관 : ETRI, 공동기관 : (주)시스온칩, 인하대학교)" 과제는 2년(2005.03~2007.02)동안 77억원(정부70 ,민간7)을 투자하여 802.16e(OFDMA) 저전력 모뎀 핵심 IP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통부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802.16e 단말기 모뎀 개발사업은 이 과제가 처음이다. 두 번째 "고성능 극소형 SiP 기술 개발(주관기관 : KAIST, 공동기관 : ETRI)" 과제는 4년(2005.06~2009.05)동안 125억원(정부113 ,민간12)을 투자하여 차세대 모바일 단말용 SiP 설계 개발 환경 및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차년도부터 과제관련 산업체를 조기에 참여시켜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문의: 이상호 연구원 (042-710-1183), 임문혁 연구원 (042-710-1186)

RAND 유럽 연구소장 및 스페인 장관단 내방

세계적 민간연구기관인 랜드(RAND, Research And Development) 유럽 연구소장이 5월 20일 우리원을 방문하여 IT산업 관련 협력방안과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RAND 연구소는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중립적 국제 연구기관으로 독일 등 4개국에 해외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정보통신부 초청 "서울디지털포럼 2005" 참석차 방한한 스페인 대학연구정보사회부 장관 및 IT관련 기업대표들이 5월 19일 우리원을 방문하여, IT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ITSoC network

– IT SoC 산업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IT-SoC협회

www.itsoc.or.kr

대만 SoC산업시찰단 대만 방문

정보통신부, ETRI,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 IT-SoC협회로 구성된 대만SoC산업시찰단이 지난 6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효과적인 IT부품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대만 SoC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대만의 정부정책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시찰단은 대만 교통통신부, 경제부 공업국 및 중소기업처, N SoC Program 등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양국의 통신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SoC 산업활성화 추진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대만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찾아 SoC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 듣고 한국의 연구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파운드리업체인 TSMC와 fabless기업인 Sunplus Technology 등 산업체를 방문해 대만 SoC 산업현황을 둘러보았다.

대만 SoC Consortium과 양해각서(MOU) 체결

IT-SoC협회는 지난 6월 9일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에서 대만 SoC Consortium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에 앞서 이미 지난 4월 대만 SoC Consortium이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자는 의미에서 MOU 체결을 정식 제의해 왔고, 2개월간 MOU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거쳐 IT-SoC협회 황종범 사무총장이 대만SoC산업시찰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체결하게 되었다.

대만 SoC Consortium은 ITRI 산하기관으로 대만 SoC 산·학·연의 역량 결집과 SoC 설계환경 구축, SIP유통 및 업체간 교류를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Mediatek, Sunplus, TSMC, UMC외 40여 개의 대만 내 주요 SoC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가입되어 있다.

IT-SoC협회 황종범 사무총장은 "한국과 대만은 SoC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더욱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동안 대만 SoC업계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만 SoC 산업동향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MOU에는 양 기관의 SoC 기술·시장 정보교류, 상호간 방문 및 공동 행사 추진 등의 합의 사항과 함께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 양 기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 SoC분야 전문협의회 사업 수행 협약 체결

IT-SoC협회는 지난 5월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2005년도 IT-SoC분야 전문협의회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IT-SoC분야 전문협의회는 정보통신부의 기획 하에 기업들이 협의회를 통하여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의 활동분야 시장정보를 공유하며, 정책담당자들은 업체들의 밀착수요를 파악, 정부와 산하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올 초부터 IT-SoC협회는 협회 내 IT-SoC분야 전문협의회 사무국을 두어 그 조직과 운영을 담당해 오고 있었으며, 앞으로 분기별 정기 간담회와 세미나, 애로/실태 조사, 투자유치설명회(IR)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판교 IT업무단지 조성사업 추진 검토, 사전수요조사 진행

지난 해 12월 판교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아울러 동판교쪽의 20여만평 규모의 연구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IT-SoC협회에서는 IT-SoC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IT-SoC협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에 앞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문의: IT-SoC협회 기술지원팀
최윤섭 대리 (02-2142-1052, yschoi@itsoc.or.kr)

ITSoC network

– IT SoC 핵심 연구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ETRI, TV-Anytime기술 세계 표준 채택

– 패키지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기술 표준채택

– 시청자 원하는대로 보는 맞춤형 방송 가능길 열어

– 2010년, 2천억불 디지털TV 세계시장 선점예상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원장 임주환)는 디지털 방송연구단의 맞춤형 방송기술이 세계표준인 TV 애니타임(Anytime) 핵심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패키지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은 향후 2010년 디지털 TV의 양방향 방송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약 2,000억불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청자들은 안방에서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볼 때도 ETRI가 개발한 이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본 방송과는 별도로 다각도에서 여러 채널로 TV를 시청(Multi-view)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시청 시에도 수준별 학습이 가능케 되는 등 시청자가 원하는 대로 TV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TV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등과 같은 다양한 단말기의 성능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기호에 적합한 콘텐츠 만을 수신할 수 있게도 되었다.

따라서 이번 세계표준 채택은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기호가 서로다른 시청자 등에 자유롭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ETRI가 최초 정의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TV-Anytime 포럼에 채택된 '패키지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은 홈 네트워크 등 방송통신망 연동 환경에서 시청자 특성과 시청환경에 적합한 맞춤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V-Anytime 포럼 2 단계(Phase II) 표준의 대표기술로 ETRI는 세부 기술에 대해 10건의 기술 기고와 17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였다.

ETRI가 개발한 패키지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의 TV-Anytime Phase II는 2002년 말에 제정, 2004년 미국, 유럽, 일본 등 디지털방송 표준으로 채택된 Phase I보다 월등하게 진보된 서비스로 Phase I이 단방향 방송서비스인데 반해 Phase II는 다양한 방송 소비환경에서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표준으로 ETRI가 채택시킨 '패키지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다수의 개별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조합, 시청자 선호 환경에 맞춘 대화형(interactive) 정보맞춤형 방송이라는 장점을 가지며, 이는 통·방 융합의 방송 소비환경에서 원하는 방송 컨텐츠를 언제(Anytime), 어디서(Anywhere)나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접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TV-Anytime 포럼 2 단계(Phase II) 표준은 2005년 1월에 표준 초안을 완료하고 2005년 5월에 최종 표준을 공표하였으며,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표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ETRI 디지털방송연구단장 안치득 박사는 "전 세계가 사용하게 될 맞춤형 방송 세계표준의 핵심기술을 ETRI가 보유케 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TV-Anytime 표준이 맞춤형 방송 분야에서 세계표준이 됨으로써 2010년 약 1억 2,500만대 규모를 형성할 세계 디지털 TV시장 (출처 Merrill Lynch, 2005.2.)에서의 맞춤형 방송 도입은 ETRI의 표준기반 상용 서비스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TV-Anytime 포럼에 채택된 '패키지 기반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의 세부기술

- 방송환경에 맞는 패키지 구조 정의
- AV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타입(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응용프로그램 등) 또는 주제(교육, 오락, 데이터방송 등)별 객체 기술 메타데이터 (Object Description Metadata) 정의
- 패키지구조를 이용한 데이터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브라우징 기술
- MPEG-21 UED(Usage Environment Description)를 확장 적용한 사용자환경에 따른 타겟팅 기술
- 객체간의 관계 기술을 통한 동기화 및 랜더링 정보 제공 기술
- 패키지/컴포넌트/광고 식별(Identification) 기술

– IT SoC 산업육성의 견인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

www.software.or.kr/itsoc

'05년 2차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IT SoC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SoC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05년 2차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의 1차 신청 접수기간을 통해 총 13개사 13종이 신청 접수를 했고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9개사 9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SoC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연 2회 신청 · 접수에서 연 3회(3월, 6월, 9월) 지원기회를 확대하였고, IP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05년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원스톱 파운드리 서비스 지원, △IP 도입 및 사용 비용, △후반부설계(Back-end Design) 비용, △제작(Mask & Fab) 비용, △패키지(Package) 비용 등 SoC 개발비용의 50% 이내를 선택적으로 지원받아 SoC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 추진해 온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은 총 113종을 지원하여 그 중 개별제작의 경우 양산 성공률이 평균 60%에 이르며, 10억원 이상의 누계 매출을 올린 SoC가 8종이나 배출되었다. 특히, 2002년에 지원한 휴대폰내장컨트롤러의 경우 누계 매출액이 1,850여억원에 달하는 Star SoC로 성장하고 있어 본 사업의 수혜기업들에 대한 성장 추이가 더욱 기대된다.

'05년 상반기 IT-SoC전공인증과정 현장방문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은 IT-SoC전공인증과정 사업 및 '05년 추진방향에 대한 안내와 참여 대학별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05년 상반기 IT-SoC전공인증과정 현장방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총 48개 대학에서 329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현장방문설명회는 개별 대학이 아닌 경기,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청 등 지역별로 개최되어 가까운 지역의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인증과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설명회 개최의 의의가 있었다. IT-SoC사업단은 설명회 참석자들이 IT-SoC전공인증과정 교과목 이수, IT-SoC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설계특론, 툴교육, Teach for trainer 등), 전시회, 논문발표회, 지역캠퍼스 운영, 실습프로젝트 예산 · 일정, IP, MPW 지원 등에 관하여 개진했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방법과 절차로 IT-SoC전공인증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이 동참하는 '05년 하계 설계특론 개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IT-SoC사업단은 집중적인 설계실습능력 향상을 위한 '05년 하계 설계특론 개설 계획을 확정하였다. 석 · 박사급 SoC 설계인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설계특론은 IT-SoC전공인증과정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04년 하계 및 동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산업체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설계특론의 취지에 따라 이번 하계 설계 특론은 관련기업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계특론 스폰서쉽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련기업들이 설계특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추후 산업체와 IT-SoC사업단이 설계특론을 공동기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05년 설계특론은 총 4개의 코스웨어 카테고리, 1) SoC 플랫폼 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 2) SoC 제품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 3) SoC 요소기술 설계실습 코스웨어, 4) SoC 전공인증 교과과정 코스웨어를 구성하였으며, '04년 동계에 비추어 각 코스웨어별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 개설 강좌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데 주력하였다.

※ 설계특론 스폰서쉽 프로그램이란?

SoC 관련기업이 설계특론 강좌에 스폰서를 제공하고, 해당강좌의 수강인원에게 참여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기업에게는 다양한 홍보효과 및 잠재적인 채용 인력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수강생에게는 기업현장의 노하우 및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T-SoC전공인증과정, 혁신적인 SoC 교육과정 사례로 국제 학회에 발표

IT-SoC전공인증과정의 교육기획 및 운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SoC아키텍트양성팀 박장현 팀장과 김은옥 수석은 MSE2005(200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Systems Education)에 참가하여, 2년여간 수행해온 IT-SoC전공인증과정을 모델로 SoC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제목: 'A Study on Renovative Plans for Engineering Educational Curricula and Courses for SoC(System-on-Chip) Design Architects in Korea's IT Industry') MSE2005 는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의 Co-located 컨퍼런스로 SoC 설계분야의 교육적 사례에 관한 논문을 다룬다. 사업단은 이번 논문발표를 계기로 MSE & DAC Conference에서 SoC 설계분야의 인증교육과정을 운영, 선도하고 있는 PDG(Pittsburgh Digital Greenhous) 관계자 및 3개 참여대학(Univ. of Pittsburgh, Carnegie-Mellon Univ., Pennsylvania State Univ.)교수들과의 미팅을 가지고 전공 인증과정 프로그램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SoC 교육 및 인력 양성 체계를 홍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TSoC network

– SoC설계의 핵심요소인 IP설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

www.sipac.org

2005 IP Catalog CD 제작

SIPAC에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SIPAC IP 유통시스템에 등록된 1,400여건의 IP를 소개하는 2005 IP Catalog CD를 제작하였다. CD에는 각각의 IP에 대한 Catalog 정보 및 Datasheet가 수록되어 있으며, 약 100여 개의 IP Seller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IP를 Category와 Seller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원하는 IP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IP Catalog CD는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 본 CD가 필요하신 분은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정확한 주소 및 간단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여 다음 문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mshwang@sipac.org)

SIPAC, "IP/SoC 개발, 거래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SIPAC에서는 SoC 포럼과 공동 주관하여 차세대 반도체 SoC의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7일(목) "IP/SoC 개발, 거래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응용분야별 IP/SoC 설계 기술 동향 및 전망과 IP 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며, IP/SoC 관련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IP 거래를 바탕으로 거래 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로써 IP/SoC 관련 업체들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 IP/SoC 산업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sipac@sipac.org)

지능형 SoC Robot War 2005 참가팀 접수 마감결과

지난 4월 1일을 시작으로 지능형 SoC Robot War 및 태권로봇의 참가팀 접수가 진행되었다. 100여개 팀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2004년도와 비슷한 수의 참가팀이 신청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태권로봇도 예상보다 많은 팀들이 접수를 마친 상태이다.

SoC Robot War 참가팀들은 설명회에 참가한 후, 출전자격 TEST를 준비하게 되며, 이를 통과한 팀들은 예선전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예선전에서는 총 16개 팀이 선발되어, 최종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태권로봇에 참가하는 팀들은 7월말에 있을 데모심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데모심사는 PC와 PC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인식이 가능하도록 S/W를 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물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인식하는 물체나 방법의 난이도에 따라 가산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위와 같이 데모심사를 거쳐 8개 팀이 선발되며, 선발된 팀들은 로봇과 로봇 두뇌보드를 제공받아 올 11월 예정인 본선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문의: ssroh@sipac.org)

지능형 SoC Robot War 2005 설명회 열려...

지능형 SoC Robot War 2005 설명회가 로봇워 참가 팀들을 대상으로 서울 IT SoC 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작년까지는 SoC Robot War 소개, 경기방식, 두뇌보드 설명, 로봇 설명으로 구성되어 하루 동안 진행된 반면, 올해는 참가팀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대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두뇌보드 실습도 함께 이루어졌다. 때문에 처녀출전인 참가팀들은 보다 쉽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의 참가팀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응용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